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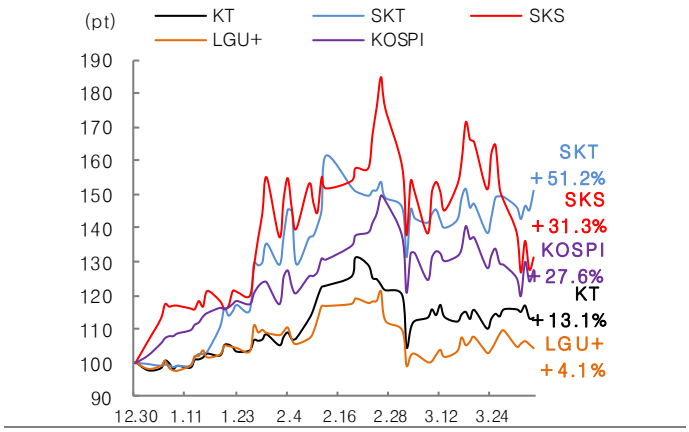
기업	25/12/30	03/27	04/02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79,900	80,900	▲27,400	▲51.2%	▲1,000	▲1.3%	3,320	4.1	
SK스퀘어 (402340)	368,000	544,000	483,000	▲115,000	▲31.3%	▼61,000	▼11.2%			
KT (030200)	52,600	60,800	59,500	▲6,900	▲13.1%	▼1,300	▼2.1%	2,600	4.4	
LGU+ (032640)	14,720	16,100	15,330	▲610	▲4.1%	▼770	▼4.8%	700	4.6	
KOSPI	4,214.2	5,438.9	5,377.3	▲1,163.1	▲27.6%	▼61.6	▼1.1%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통신은 든든하죠. 지수를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 통신 주간 -1.1%, KOSPI -1.1%. YTD 통신 +25.0%, 지수 +27.6%. 지정학 이슈 부각 후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통신이 방어 역할 수행
- 2/27 이후 주가는 SKT +1.4%, KT -6.7%, LGU+ -7.3%, KOSPI -13.9%로 통신이 안전판 역할을 착실히 수행
- 주총을 통해 KT와 SKT의 CEO가 확정되면서 3사 모두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 향후 1~2개월 이내에 KT와 SKT의 중장기 전략 방향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가의 기대 포인트
- 25년 해킹 이슈에 따른 가입자 등락과 마케팅 영향으로 1Q26 실적은 다소 slow하게 시작될 전망이나, 연간 전망은 양호
- 26년 3사 합산 영업이익은5.1조원(+14% yoy)으로 20년 만에 5조원대 이익 복귀 전망. 밸류에이션, 주주환원 감안시 KT, SKT 순으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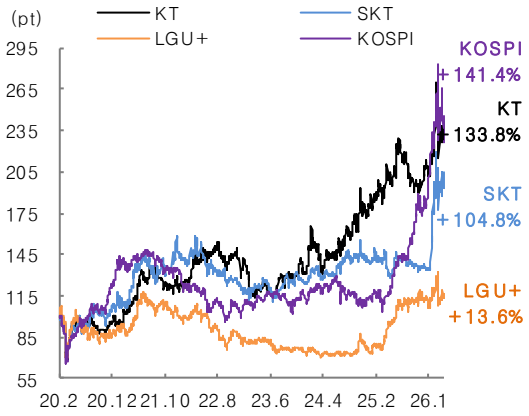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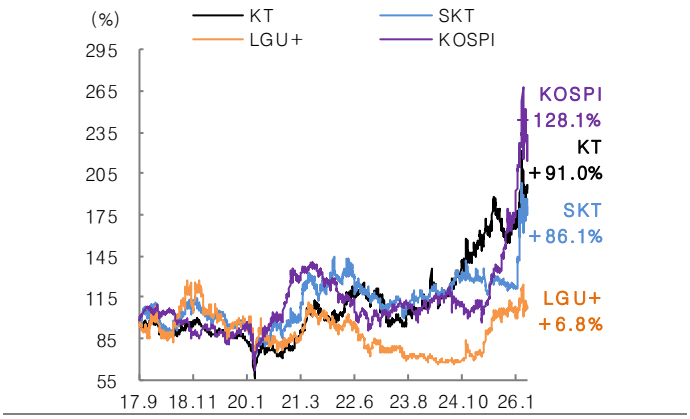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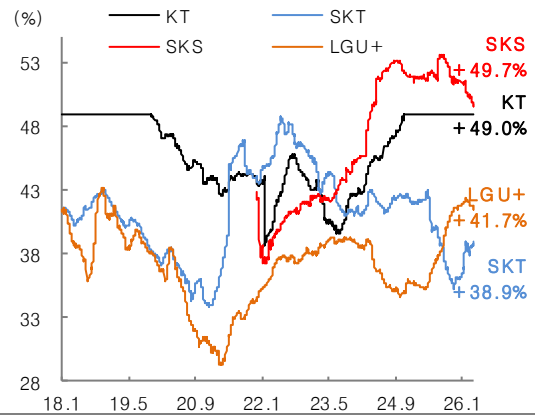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7.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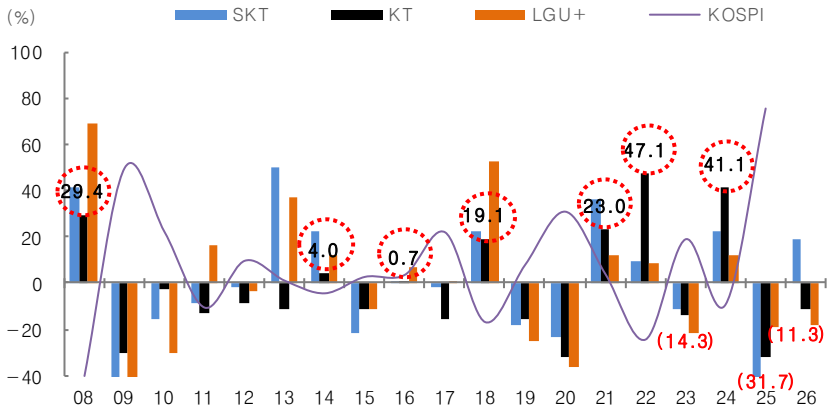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51.2%(+18.5%), KT +13.1%(-113%), LGU+ 4.1%(-18.4%)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51.2	13.1	4.1	27.6	18.5	(11.3)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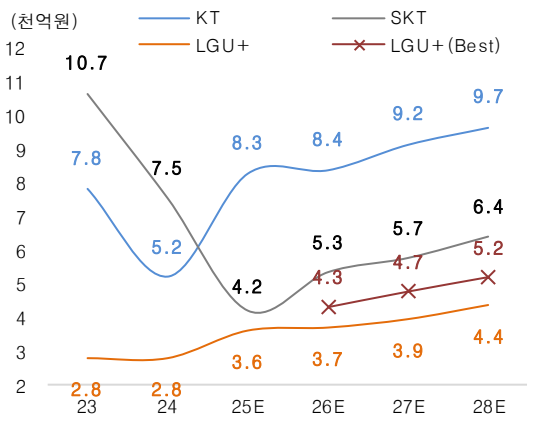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KT 신임 CEO 체제, SKT-NTT도코모 공동백서, 3월 번호이동 증가, LG 6G 협력, 주파수 점수 경매	
KT KT 신임 CEO 체제	1. KT는 31일 주주총회에서 박윤영 대표 대표이사 선임 공식화. 취임 직후 임원 규모 30% 축소와 전면 조직 개편 단행. 네트워크 기반 기업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전략 제시 2. 핵심은 임원 축소와 사업 기능 통합 중심의 슬림 구조로 재편된 운영 체계.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를 통합한 커스터머 부문과 B2B 중심 AX부문 신설 3. AX사업부문은 AI 개발과 제휴, 서비스 확장을 담당하며 외부 인사 영입 통한 전문성 강화 전략. 기존 AI 리더십 대거 교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중심 전략 변화 가능성 제기. CTO 및 주요 AX 인력 이탈과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 등 인적 구조 재편 본격화 4. 한편, 보안 조직은 분산 구조에서 정보보안실로 통합되며 금융권 출신 책임자 영입 통한 대응 체계 강화 추진. 대규모 해킹 이후 신뢰 회복과 보안 역량 집중이라는 핵심 과제 반영 5. 또한, 광역본부 축소와 현장 인력 재배치 통해 실행 조직 효율성 강화와 현장 중심 운영 구조 구축. AI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AX, 디지털 금융 플랫폼 투자 확대 통한 성장 전략 기반 마련
긍정적	▪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KT의 CEO 교체가 큰 이슈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긍정적 ▪ 신임 CEO의 향후 3년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SKT SKT-NTT도코모 공동백서	1. SKT와 NTT가 가상화 기지국과 AI 기반 무선망 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 백서 발표. 5G 고도화와 6G 전환 대비 통신 인프라 구조와 핵심 기술 청사진 제시 2. 백서는 양사 실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경험 기반으로 작성. 기술 요구사항과 구현 방식, 도입 효과 분석 중심. 이동통신사와 장비사 간 협력 강화 통한 기술 발전 가속 목적 3. 핵심 요소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 구조 제시되며 특정 인프라 의존 없는 소프트웨어 배포 가능성. 네트워크 혁신 속도 향상과 가상화 기지국 및 AI-RAN 발전 기반 구조 설계 4. 리소스 풀링 기술은 분산된 연산 자원을 통합해 효율성과 전력 절감, 서비스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 네트워크 용량 확장과 운영 유연성 확보를 통한 통신사 경쟁력 강화 5. xPU 기반 가상화 기지국에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해 통신과 AI 컴퓨팅을 통합 제공 가능한 플랫폼 구조 제시. 기존 통신 인프라를 AI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AI-RAN 개념 구현 6. 양사는 MWC 2026에서 해당 기술의 실증 성과를 공개하며 구현 가능성 검증 단계 진입. 22년 이후 지속된 협력 연장선에서 글로벌 6G 표준화와 생태계 확장 목표
긍정적	▪ MWC 2026을 계기로 통신사의 AI 산업에 대한 역할 확대. Agentic AI와 Physical AI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AI RAN과 Edge AI에 대한 필요성 증가
산업 3월 번호이동 증가	1. 3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11만 명 이상 증가하며 시장 반등 흐름 확인. 총 63.2만명 기록으로 전월 대비 22%, 전년 대비 약 20% 증가 2. 사업자별 이동 모두 증가하며 SKT 15.0만명, KT 8.9만명, LGU+ 10.4만명 기록된 가입자 이동 구조. 전월 대비 각각 22%, 28%, 25% 증가하며 통신 3사 전반으로 이동 수세 확산 3.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29.9만명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하며 시장 내 비중 확대 흐름 지속. 순증 기준 알뜰폰은 8,320명 증가한 반면 SKT 6,293명, LGU+ 2,135명 감소 4. 번호이동 증가 주요 요인은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와 사전예약 흥행이라는 단말 중심 시장 자극. 사전 판매 135만대는 사상 최대 실적. 가입자 이동 촉진 요인 작용 5. 1월 KT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 이동 둔화 예상에도 3월 반등 나타나며 단기 변수 영향 확인. 통신사 간 이동에서 알뜰폰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 재확인 6. 해킹 사태 이전 구조로 회귀하는 흐름 속 알뜰폰 중심 순증 구조 지속 가능성 제기. 향후 단말 출시 효과 감소 시 이동 규모 제한 및 안정화 국면 진입 전망
중립적	▪ 번호이동 규모가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신규 단말 출시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 수준
LGU+ LG 6G 협력	1. LGU+와 LG전자가 6G 대비 AI 기반 통신 기술 연구와 국제 표준화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통신과 디바이스 역량 결합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점 전략 전개 2. 협력 분야는 시맨틱 통신과 양자내성암호 중심으로 구성되며 미래 통신 구조 핵심 기술 확보 목적. 단순 속도 경쟁을 넘어 효율성과 보안 중심으로 진화하는 통신 패러다임 반영 3. 시맨틱 통신은 정보 의미와 맥락 중심 전달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량 감소와 효율성 향상 가능성 존재. 초저지연과 고효율 요구되는 6G 환경에서 핵심 인프라 기술로 부상 4.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 위협에 대응 위한 차세대 보안 기술로, 네트워크와 단말 전반 적용 필요성 확대 중. 6G 시대 보안 체계 고도화와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기술 영역 5. LGU+는 네트워크 운영 경험 기반 요구사항 도출, 시나리오 검토 및 표준화 대응 역할 수행. LG전자는 알고리즘 연구와 단말 플랫폼 적용 기술 개발 중심으로 역할 분담 6. 양사는 정기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통해 글로벌 표준화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 AI와 통신 융합 중심 6G 기술 주도권 확보와 산업 생태계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
긍정적	▪ LG 그룹은 LG AI 연구원의 Exaon을 기반으로 LGU+의 ixi-O 등 그룹사간 다양한 협업 구조 형성
산업 주파수 점수 경매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점수 경매 기반 간접 규제 도입 제안. 기존 직접 규제 방식 한계 보완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 방향 제시 2. 보고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공공 서비스 접근성과 외부효과를 갖는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자율 한계 지적. 투자 부족 가능성 존재하는 구조에서 정책 개입 필요성 제기 3. 현재 한국과 미국 등은 커버리지와 기지국 수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 규제 방식 운영. 그러나 투자 둔화 환경에서 경직적 규제가 자원 배분 비효율 초래하는 문제점 부각 4. 대안으로 제시된 점수 경매는 사업자가 가격과 함께 품질과 커버리지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 구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통해 자발적 투자 유도하는 간접 규제 모델 5. 단순한 점수 경매 설계만으로도 기존 직접 규제 대비 효율성 개선 가능성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 제시. 완전 최적 설계는 아니더라도 정책 실행 가능성과 성과 균형 확보 가능성 강조. 향후 주파수 정책과 5G 및 6G 투자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제도 논의 확산 기대
긍정적	▪ 주파수는 할당 또는 경매 시점 마다 항상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 발생. 완벽한 방안은 아니더라도 기존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파악 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노력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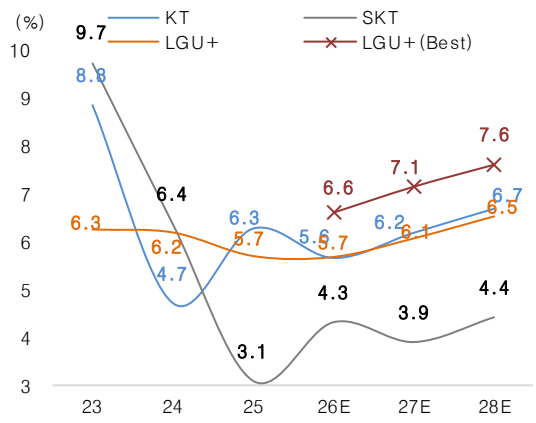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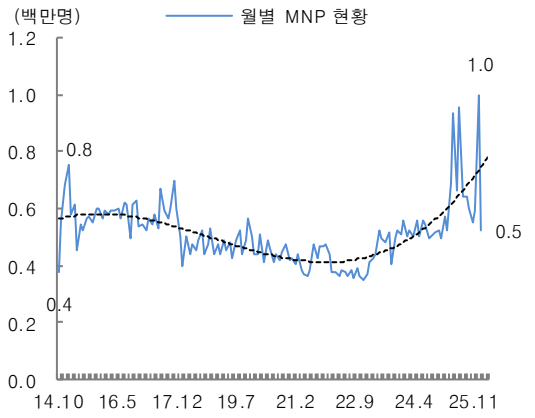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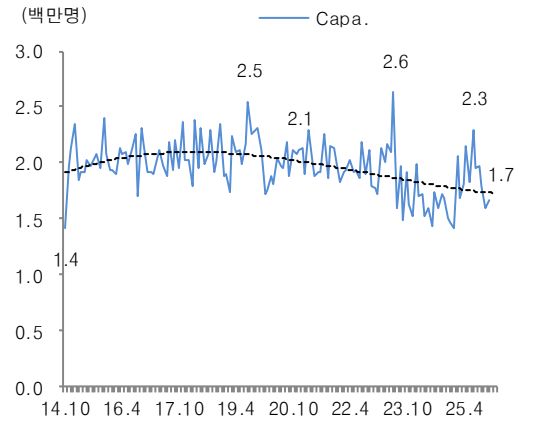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2월) 521천명, -479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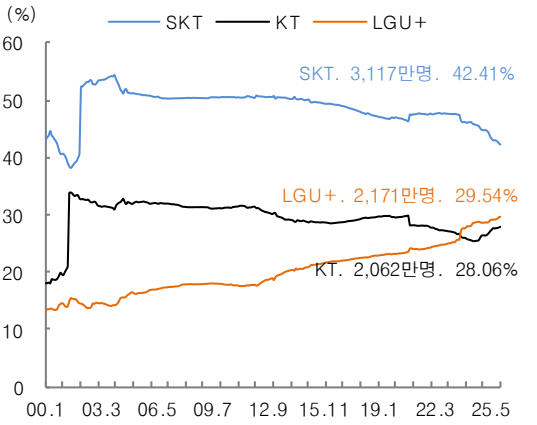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7만명(25.12월). 24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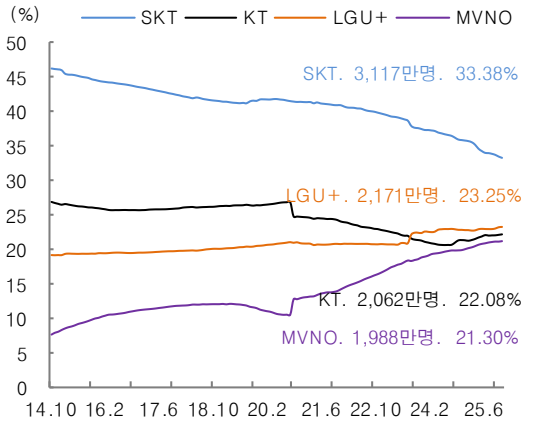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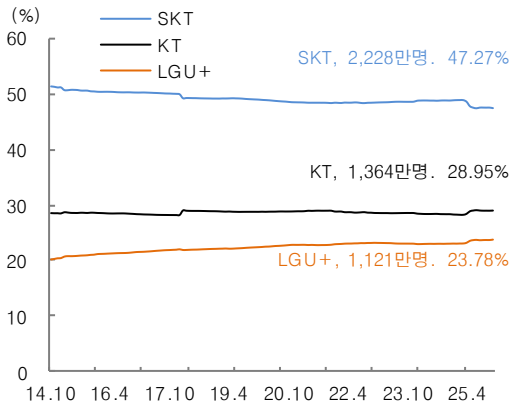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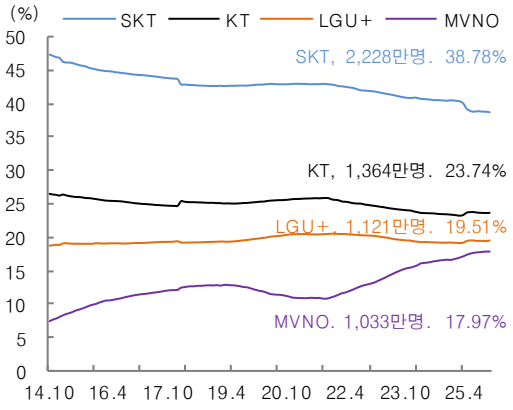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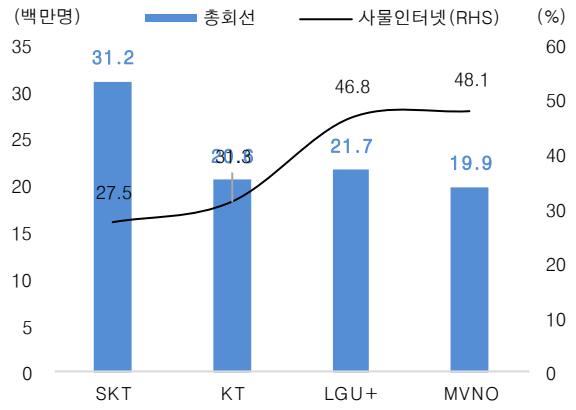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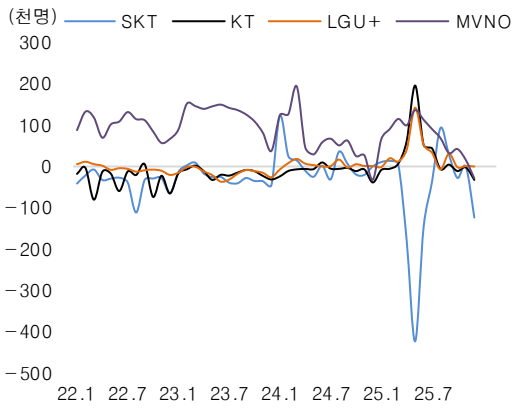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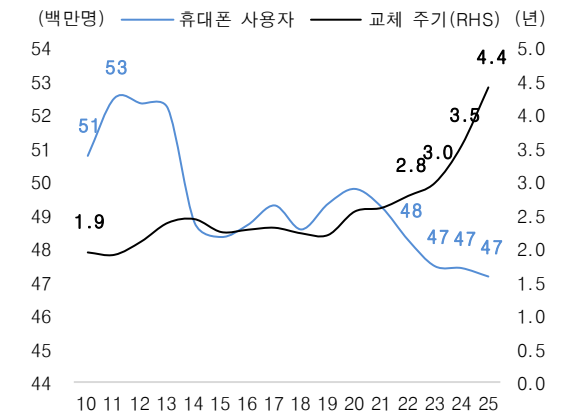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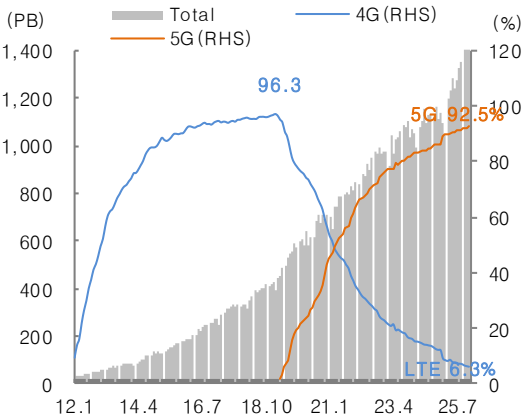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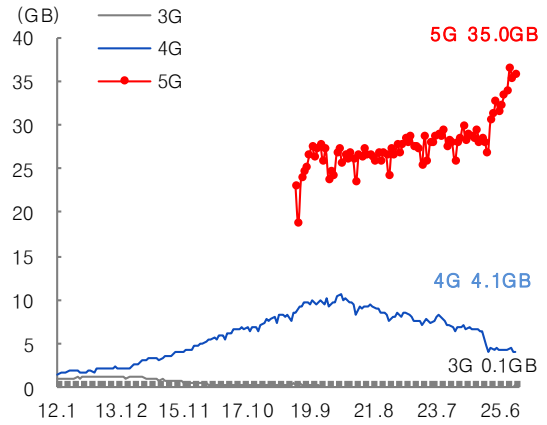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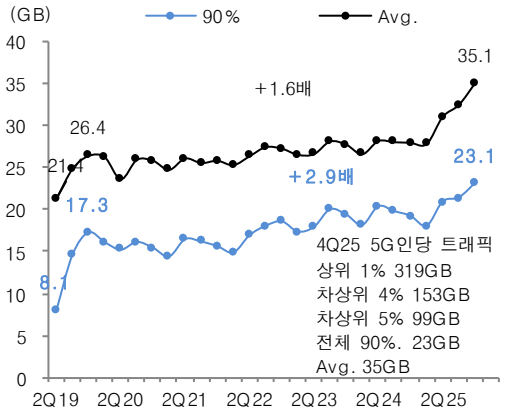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0GB(25.12월), +511M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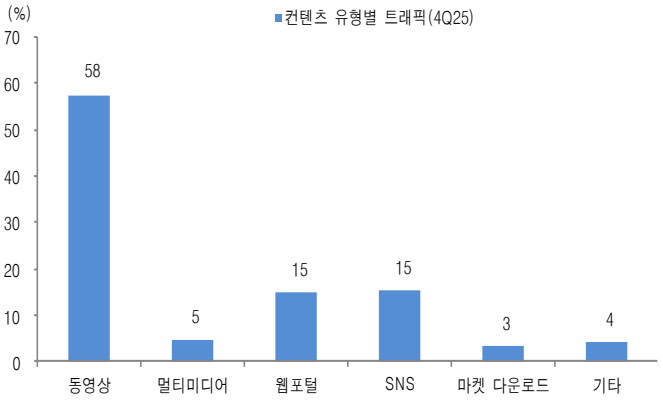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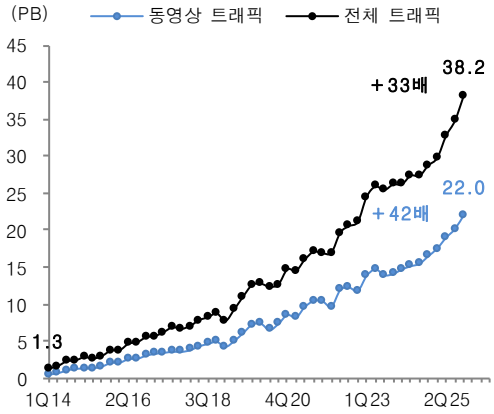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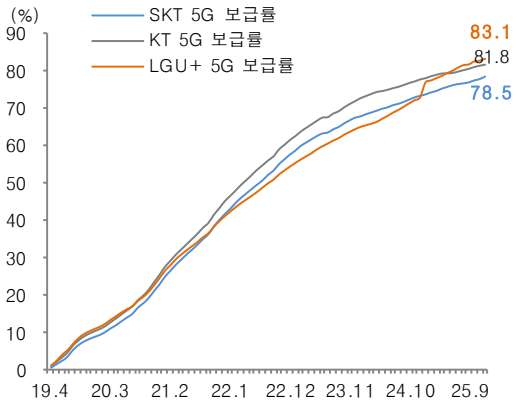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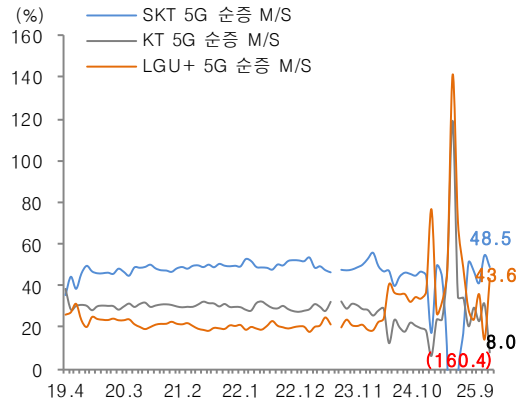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0.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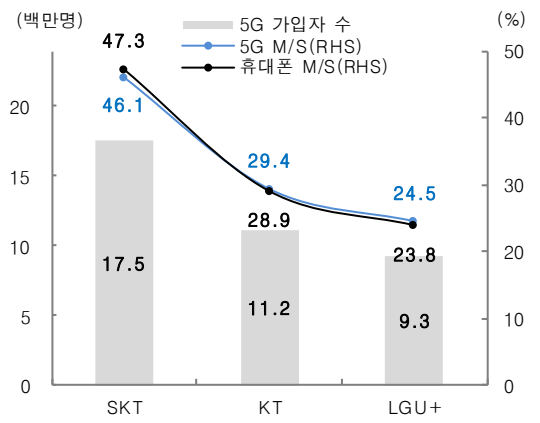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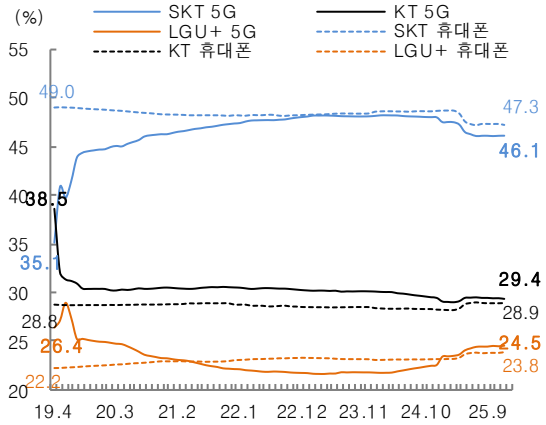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